

여호와의 싹

이사야 4:1-6

교회의 큰 절기는 감사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마다 적절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절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작은 불꽃하나가’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어 모든 사람의 몸을 녹인다고 말합니다. 새싹이 화창한 봄날을 만들고 새 희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나 새싹은 말 그대로 작은 것들이지만 점점 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싹은 식물의 어린 줄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표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 심음

그 땅은 매우 비참한 땅입니다.(사 4:1)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나를 사랑해 달라는 비참함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 허물어진 사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땅은 다툼과 절망과 고통과 실의의 땅입니다. 그런 땅에 여호와의 싹이 심어지면(사 4:2) 이 싹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그 땅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소산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 아기 예수님을 안고 노래했습니다.(눅 2:28-32) 헬라어에는 잡다, 취하다, 떠맡다. 라는 뜻을 가진 ‘람바노’가 있고, 안다, 친절히 영접하다, 보유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진 ‘데코마이’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을 때는 데코마이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꼭 안은 것은 예수님을 따듯이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토록 보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꼭 안은 이 작은 아기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아기를 영접하는 모든 곳에 구원과 빛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헨델의 메시아가 가장 많이 연주 됩니다. 음악가로서 명성도 사라지고, 빛만 잔뜩 썩이고, 몸은 아픈 헨델에게 한 친구가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시를 보내 주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헨델은 이사야에 예언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24일간 두문불출하여 메시아라는 대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처음으로 연주되던 1742년, 그 곡 중 할렐루야 연주 때에 영국 왕 조지 2세가 일어나 왕 중의 왕,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후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할렐루야 합창 때에는 세계 모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사람 헨델에게 여호와와의 싹이 심겨졌더니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싹이 제대로 심긴 사람은 자기도 살고 오고 오는 세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 유일한 소망은 그 땅에 여호와와의 싹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 심겨진 여호와와의 싹이 아름다움과 영광스런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와의 싹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꼭 안으십시오.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헨델처럼 영접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복과 함께 큰 열매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2. 흘림

여호와와의 짝은 피를 흘리는 짝입니다.(레 17:11) 죄를 속하는 것은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속하는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의 짝이 심겨지면 더러운 죄가 씻기고 청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사 4:3,4) 이 어린 순, 곧 짝에서 피가 흘러 죄를 속량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피를 흘리는 여호와와의 짝, 어린 순을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사 53:2,5-7) 여호와와의 짝, 어린 순이신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죄인들을 씻어주시고 청결케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여호와와의 짝은 자기희생을 통해 절망의 사람을 살려 줍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는 야간에 병사들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곤 했습니다, 하루 밤은 토치리프 상사의 불 켜진 막사에 들렀는데 그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에 노트가 펼쳐 있었고 토치리프 상사가 휘갈겨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고 큰 빚을 졌다는 내용, 그 빚의 액수, 이제는 죽는 것 밖에 길이 없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황제는 그 위에 이런 글을 서명과 함께 써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가 이 모든 빚을 갚아줄 것인가? 니콜라이 황제가!” 토치리프 상사는 깨어나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과 황제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을 때 마침내 황제가 보낸 돈 가방과 격려의 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치리프 상사는 황제가 보낸 준 돈으로 빚을 갚았고,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술과 도박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니콜라이 황제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피를 흘린 여호와와의 짝,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날 위해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252장1,2)

3. 만듦

여호와와의 짝은 초막을 만듭니다. (사 4:5,6) 여호와와의 짝은 초막을 만들어 그곳을 예배의 자리 피난의 자리로 만듭니다. 여호와와의 짝이 만드느 초막이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슌 6:12,13a)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미미한 것 같으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예배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부터 보호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와의 짝이 만든 초막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백악관도 청와대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아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와의 짝은 절망의 땅에 심겨져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와의 짝은 우리 죄를 구속할 피를 흘리는 짝입니다. 여호와와의 짝은 초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예수님은 경배도 받으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와의 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호와와의 짝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의지합시다. 여호와와의 짝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을 송축합시다.

○ 나눔의 시간 ○

1. 절망한 땅과 절망한 사람에게 심겨져야 할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며 그것이 심겨진 결과는 무엇일까요?
2. 여호와와의 짝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3. 여호와와의 짝이 만드신 초막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4.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낼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